

아시아 공동체론 수강 후기

사회학과 강한결

수강신청 전, 몇 개 남지않은 국제학부 전공과목을 고르고 있었다. 목록 중 <아시아 공동체론>이라는 과목이 눈에 띄었다. 아시아 공동체가 무엇일까? 공동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아시아 공동체는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강의계획서에서는 아시아의 역내 갈등과 협력사항을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해본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여기서 '다양한 관점'이라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지금까지 국제학부 수업 중 동아시아입문, 동남아시아입문, 중국입문 등 지역학 입문강의를 들었다. 이 수업들은 모두 그 지역이나 국가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을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아시아 공동체론 역시 아시아를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하는 수업으로 생각되어 수강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아시아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강의는 80명 이상이 듣는 대규모였다. 첫 번째 시간에는 박성빈 교수의 강의설명이 있었다. 강의 진행방식과 평가방식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수업의 의의와 수업을 듣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설명하였다. 국제사회는 스스로 지리적이거나 인종, 문화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동남아시아연합, 영연방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공동체들을 통해 국가들은 협력하고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 아시아 공동체론은 쉽게 말해, 유럽연합 같은 아시아 역내의 공동체 설립 가능성을 공부하는 과목이다. 그렇기 위해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적 이해부터 현재의 갈등과 협력까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박성빈 교수의 오리엔테이션은 수업의 취지를 잘 설명하였다. 수업이 많이 기대됐다.

본격적인 첫 번째 강의는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왕휘 교수의 <아시아 개념의 범위와 역사>였다. 이 강의는 이번학기 강의 중 손에 꼽히는 명강의였다고 생각한다. 강의내용과 첫 번째라는 순서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토론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 개념의 뜻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 것처럼, 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선 아시아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 이 강의는 말 그대로 아시아라는 지역적 개념의 범위와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는 이제껏 아시아를 유럽 동쪽의 대륙을 나눈 지리적인 단위로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아시아는 유럽인들이 유럽 외부의 동쪽 지역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오래된 역사와 다양한 민족, 종교, 자연환경 등을 가진 국가들은 한 순간에 아시아라는 가장 큰 대륙으로 규정되었다. 즉, 아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 지역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아시아 공동체가 아시아 대륙 전체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협력을 위해 전 대륙이 뭉칠 필요보다는,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중일 3국에 이어 아세안이나 몽골, 북한, 러시아 정도가 1차적인 아시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다양한 강의를 이루어졌다. 아시아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의 외교정책, 동남아시아, 일본과의 금융협력, 재일조선인, 러시아의 북한노동자 같은 강의가 있었다. 반면, 개인

적으로 아시아 공동체와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본의 사토야마 자본주의, 중국과 티베트의 갈등 같은 강의도 있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시아 공동체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들이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강의는 정준곤 교수의 <지금 왜 아시아 공동체인가>였다. 이 강의는 아시아 공동체론의 핵심이다. 아시아 공동체의 필요성, 아시아 공동체의 걸림돌, 아시아 공동체의 의의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되었다. 경제적으로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각국은 여전히 국민국가의 정치체계를 띄고 있다. 따라서 민족,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으로 나라를 규정하고,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행동한다.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는 곧 공동체 협력의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 간 교류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버리고, 지역공동체적 정체성으로 확대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민족, 문화, 역사간 갈등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안녕을 추구해야 한다.

학기 초 어떤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인가요?” 모든 학생들은 그렇다고 답했다. 교수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시아인인가요?” 학생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도 Asian의 범주에 한국인 또한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 그 동안 한국인이라는 ‘국적’의 정체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아라는 ‘대륙’의 정체성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 더 맞다. 우리는 아직 국가의 정체성을 통해 일종의 국수주의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국제적인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국은 특히 외교가 중요한 나라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라는 강국들 틈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상술했듯 국민의 정체성을 넘어 지역민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나라끼리 이익다툼을 자제하고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협력으로 안정된 국제질서는 갈등상황보다 더 번영할 수 있다. 나는 이번학기 아시아 공동체론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한 학기동안 아시아 공동체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 그 중에서는 특히 감명 깊었던 강의도 있었고, 별로라고 생각한 강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로 습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지식을 배우고 종합하여 본인만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아시아 공동체론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통해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앞으로 다른 수업을 듣거나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아시아인’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아시아 개념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고, 아시아 공동체 구성원으로써 나의 역할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국제적인 사고를 기르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추천한다. 단, 나처럼 몇몇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하며 듣기를 희망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다른 학생의 질문에든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이제 세 번 열린 수업이니만큼 어수선한 면도 있었지만, 교수와 조교의 꼼꼼한 관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탄탄한 강의를 될 것이라 믿는다. 한 학기동안 강의해주신 모든 교수들, 힘든 일을 도맡아오신 조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끝-